

The Market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4. 10

1Q26 어닝시즌 분수령, 빅테크 AI 투자 위축 가능성

마켓 | 황산해 | sh.hwang@ls-sec.co.kr

빅테크 CAPEX는 매크로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1Q26 어닝시즌 앞두고 빅테크 CAPEX 가이드선과 투자 의지에 대한 관심 증가. 반도체, 전력 등 광범위한 AI 밸류체인이 랠리와 이익 전망의 근간 이기에 주요 분수령. 다만 현존하는 불안한 매크로 환경과 변수들의 영향력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한 레벨이라 판단. 금번 어닝시즌에서 제시될 빅테크 가이드선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반복된 서프라이즈로 현 시장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컨센을 상회할 것임을 상정. 즉 이를 넘어서는 기대치인 위스퍼 넘버를 상회할지 여부가 관건

하회 시, 투자의 주체인 빅테크들과 AI 인프라 관련 업종간의 추가 반응 엿갈릴 것으로 예상. 빅테크들은 그간 투자 과열과 AI 수익화 시점에 대한 우려 존재. 이익 성장에도 밸류를 누르는 주요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성적 투자 판단은 호재로 받아들여질 여건

장단기 금리차와 AI 투자와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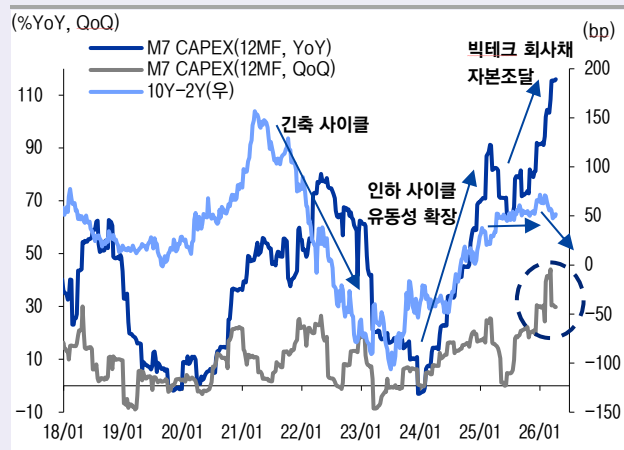
차트 상 시그널은 장단기 금리차와 M7 CAPEX 증가율의 연관성에서 확인. 매크로 환경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단기 금리차가 CAPEX 증가율을 6M가량 선행. 기업의 관점에서 우호적 유동성 환경은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며 낙관적 수요(경기 성장)는 미래 투자와 AI 확산 전망의 명분이 되기 때문.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성장 전망 후퇴는 25년초부터 AI 투자 전망을 위축시킴. 다만 AI 경쟁의 과열 양상이 빅테크들의 회사채 발행을 유발하며 투자 경쟁 재개. 그러나 최근 QoQ 증가율 기준 M7 CAPEX(12mf) 전망 증가율은 이란 전쟁 기점으로 하락세 전환. 더해 1Q26부터는 아마존, 메타, 알파벳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익 전망 또한 부정적. 빅테크들의 주 수익처가 아직까지는 매크로 환경과 맞닿아 있는 광고와 리테일 사업 비중이 높은 영향 무시할 수 없는 요인

투자 위축 유발 요인: 이란전쟁, 사모신용, Chipflation, 주주환원 축소 반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고려해야 할 리스크요인들 산재. 이란 전쟁의 경우 에너지와 원자재, 중간재 가격을 자극하며 당장의 CAPEX와 OPEX 압박을 동시에 가중. 더해 사모신용 이슈는 조달비용을 압박. 이들은 즉 '현재'의 공격적인 투자판단을 딜레이 시키는 요인. 더해 투자를 위해 대폭 축소했던 주주환원 정책도 장기화 될 시 거버넌스상의 상당한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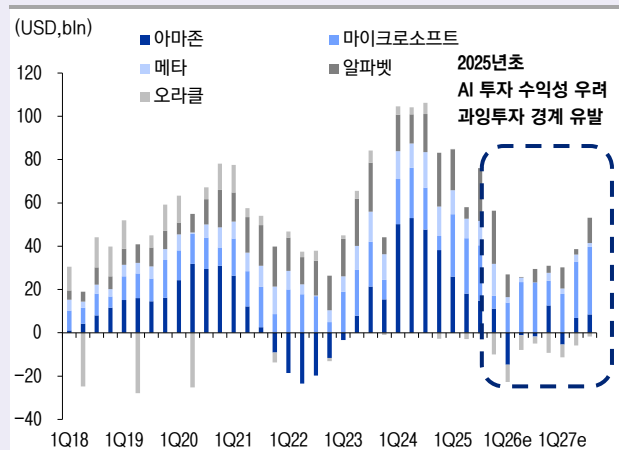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1Q26 실적 일정: 아마존(4/23), 알파벳(4/28), 마이크로소프트(4/28), 메타(4/29)

그림1 장단기 금리차와 M7 CAPEX(12mf) 증가율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FCF 추이 및 전망치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황산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